

# 아이·청소년 함께...살기 좋은 장성 만들기 박차

후반기 군정 인구·돌봄 집중

다음달 가족행복센터 문 열고

청소년 수당 등 교육 지원 확대

교육특구 선정 후속 다양한 사업



10월 개관 예정인 가족행복센터 전경.

장성군이 고령화, 저출산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족행복센터(장성읍 영천로 199-10) 개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900평(2957㎡)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

공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상무

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지상 2층 규모로 커뮤니티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 단계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닥 면적 300㎡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장성군은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일조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전통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교육청, 산업체 등과 힘을 모아 지역돌봄책임제 시행,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문무(文武) 특화인재 육성계획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적극적인 인구돌봄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으며, 사랑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내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대폭 확대

복지부 중위소득 인상 맞춰

강진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월 5만

200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은 올해 183만 4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000원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강진군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에 배너 설치와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 담양군, 내년도 시책 발굴 보고·토론회

담양군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담양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자농촌 구현,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했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지난 2일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착공식이 황소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함평군 제공>

##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 착공...내년 10월 완공

직매장·체험·교육실 등 들어서

함평군은 농업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며, 2025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년농업인 교류센터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향후 함평군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현장 군민의 필요를 잘 반영해야만 기존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신활력혁신센터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 증진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9월 한달간

나주사랑카드 최대 30% 할인

나주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나주사랑카드 추가 5% 캐시백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중 나주사랑카드 결제하면 선할인 10%에 추가 5% 캐시백 적립으로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타 지역 거주자 주말 소비 촉진 사업 추가 5% 캐시백 지원도 10%로 상향 추진해 모두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추가 5% 캐시백 적립까지 중복 할인받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소요 비용인 29만여원을 나주사랑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실제 지출 금액은 20만3000원으로 8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나주시는 또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 한달간 나주사랑카드 구매할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했다.

나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17곳으로,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일자리-물가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나주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혜택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팍’ 매출 20억원 돌파

화순군은 3일 기준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이 올해 매출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론칭한 화순팍은 지난해 최고 매출 16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매출 20억원을 넘어섰다.

화순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화순팍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복숭아, 사인머스켓,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콜비, 기정떡, 화순쌀 등이 인기품목으로 꼽혔다.

지난해 위탁운영 했던 화순팍을 올해부터 화순군이 직접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회원 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화순팍은 오는 13일까지 ‘추석맞이 달달(月)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원)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